

# 국내 소비자의 우유 음용 행태 변화

설국환, 신정섭, 손지용, 유자연, 윤정희, 함준상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e-mail : seolkh@korea.kr

## Changes in Milk Consumption Behavior of Domestic Consumers

Kuk-Hwan Seol, Jeong-Seop Shin, Jiyong Son, Jayeon Yoo, Jeonghee Yun,  
Jun-Sang Ham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요약

우유의 소비량은 저연령층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감소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2016년과 2018년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한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우유를 음용하는 행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우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수행되었다.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과 4대 특광역시, 7개 도청소재지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가구 내 주 음용 음료는 커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우유가 높게 나타났으나 2016년 대비 10.2%p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우유 음용 빈도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유를 음용하는 방법은 흰 우유를 그대로 마시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 역시 2016년 대비 6.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에서 우유를 마시는 주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이며, 향후 가구 내에서 우유 소비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2016년 대비 1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주 기별 집단에서도 향후 우유 소비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2016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양한 음료들 속에서 흰 우유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나, 우유의 소비자 건강에 기여하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노력 등을 통하여 저연령층 뿐만 아니라 성인층에까지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1. 서론

국내 우유 및 유제품의 연간 1인당 소비량은 2008년 60.9kg에서 2013년 71.3kg, 2018년 81.0kg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백색시유의 소비추세는 1997년에 연간 1인당 31.5kg으로 정점을 형성한 후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최근 국내 출산율의 저하 등으로 우유의 주 소비층이었던 저연령층 인구가 감소하여 우유의 소비량 또한 감소하고 있다 (1). 이러한 추세로 인하여 백색시유 소비에 대한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어 다양한 방면에서 우유 소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유 소비실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수행되었다.

### 2. 조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설문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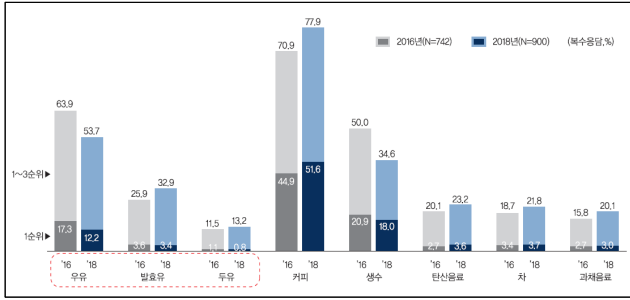
본 연구는 2016년 7월~8월(1차)과 2018년 4월~6월(2차)에

걸쳐 수도권과 4대 특광역시 및 7개 도청소재지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지역에 따른 임의 표본 할당 (Convenience Quota Sampling)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우유 유통업체 등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일반 소비자로 한정하였으며,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인문통계학적 문항과 우유 음용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인 SPSS (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 for 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3. 결과

#### 3.1 가구 내 주 음용 음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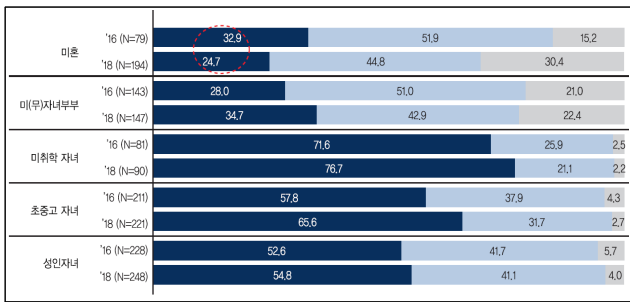
가구에서 주로 음용하는 음료는 커피가 77.9%로 가장 높은 음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우유가 53.7%로 높게 나왔으나, 2016년 대비 10.2%p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나 1인당 우유 소비량이 감소하는 통계자료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1] 가구 내 주 음용 음료

### 3.2 가구 내 우유 음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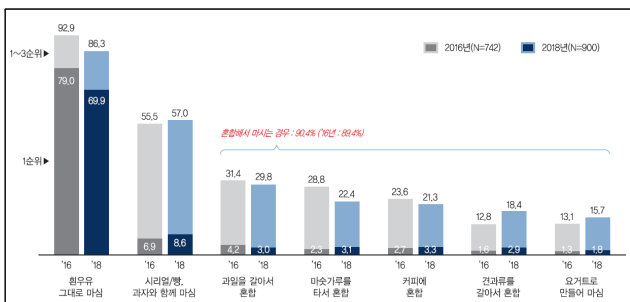
가족주기별로 주 5회 이상 우유 음용 빈도를 살펴보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76.7%)와 초·중·고자녀 가구(65.6%)에서 높았으며, 2016년 대비 각각 5.1%와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는 초등학교까지는 부모의 권유로 음용하다가 중고생 시기부터 타 음료로 이탈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혼 소비자집단에서 우유 음용 빈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가구 내 우유 음용 빈도

### 3.3 가구 내 우유 주 음용 방법

가구 내에서 우유를 마시는 방법은 흰 우유를 그대로 마시는 비율이 8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6년 대비 6.6%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견과류와 혼합해서 먹는 경우와, 요거트로 만들어 먹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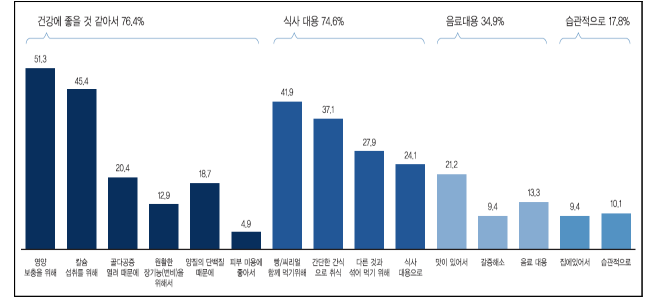


[그림 3] 가구 내 우유 주 음용 방법

### 3.4 우유 주 음용 이유

가구 내에서 우유를 음용하는 이유는 건강에 좋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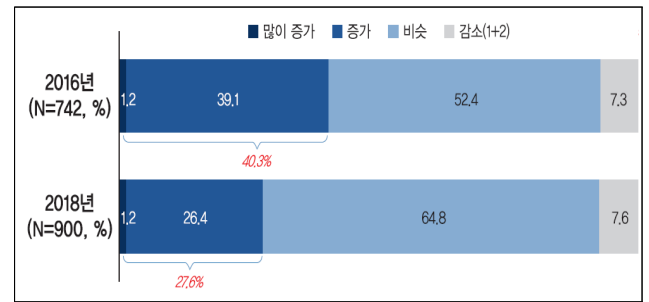
것 같아서 마시는 경우가 76.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식사대용과 음료대용, 습관적 음용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영양 보충을 위하여(51.3%), 칼슘 섭취를 위하여(45.4%) 건강을 위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가구 내 우유 주 음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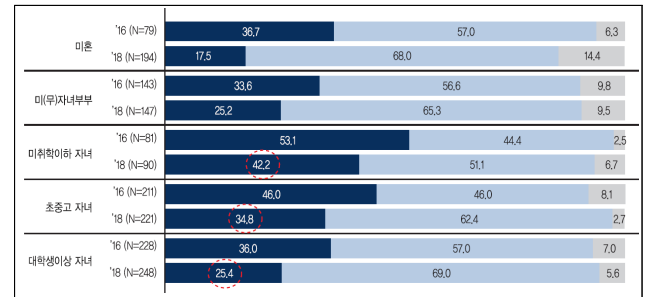
### 3.5 향후 우유 소비 의향

향후 가구 내에서 우유 소비 의향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6%로 나타나 2016년 대비 향후 우유 소비 의향이 12.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가구 내 향후 우유 소비 의향

또한, 가족주기별로 향후 우유 소비 의향을 살펴보면, 미취학자녀 가구의 소비 증가의향이 4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초·중·고자녀 가구와 성인자녀 가구 순으로 나타나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소비 증가의향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6] 집단별 가구 내 향후 우유 소비 의향

### 참고문헌

- [1] 조석진, 서미랑, “주요국의 유제품 소비추이와 낙농의 과제”, 낙농정책연구소 연구결과보고서, 5월, 2017년.